



황룡강변 백일홍

올 봄엔 더 화려해진 장성 황룡강으로

꽃양귀비·백일홍 등 4색 봄꽃 파종

2019년 장성 황룡강의 봄이 더 화려해진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장성담 하류와 시가지 부근 황룡강변의 약 16만㎡(약5만평) 부지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백일홍 등 초화류 파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하는 화종은 붉은 꽃양귀비, 보랏빛의 수레국화, 하얀 안개초, 다양한 색이 섞인 백일홍 등이다. 5월 하순경 황룡강의 봄꽃이 화려하게 만개하도록 이달 20일까지 파종을 마무리할 계획

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단일 화종으로 심어져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올 봄에는 꽃 종자를 색깔에 따라 혼합 파종해 화려한 봄꽃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룡강 봄꽃정원은 꽃 색깔에 따라 디자인된다. 장성담 하류부지에는 꽃양귀비와 백일홍 단지가 넓게 조성된다. 시가지 부근 황미르랜드는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이 구획을 나눠 심어지고, 이곳부터 제2황룡교까지 약 3.2km 구간에는 강변을 따라 색깔의 꽃들이 혼합 식재된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전기차 1007대, 수소차 346대 보급

광주광역시 최대 1500만원 보조

광주광역시는 전기 1007대와 수소 346대 등 친환경자동차 총 1353대를 올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법인 포함)는 원칙적으로 1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국비 420~900만원, 시비 250~600만원으로 총 670~1,5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18일부터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민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는 한국자동차



광주광역시청 전경

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940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가 올해 보급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지난 5년 동안 보급한 친환경자동차 1656대(전기 1449대, 수소 207대)의 81% 수준으로, 이는 친환경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시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한데 따른 결과다.

특히 시가 전기자동차 소유주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시간이 최소 7배 이상 짧은 급속충전기 118기를 설치한 것도 한몫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수소차 207대가 보급돼 운영 중이며, 수소충전소는 동곡충전소와 진곡충전소 등 2기가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9 | 해질 / 18:14

2월

18일 (월)

음력 : 1월 14일

수도권 날씨

-4~5°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학령인구 절벽’ 직격탄

31개 학교 신입생 ‘0명’

16곳 나홀로 입학, 분교 4곳 폐교
진도 등 섬지역 신입생 기근 뚜렷
“교육질 저하 우려…맞춤 대책 필요”

전남 31개 학교(분교 포함)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학교는 신입생이 단 1명에 불과해 놓여온 인구 감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6곳과 분교 2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은 새 학기 입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여수 10곳(분교 포함), 신안 5곳, 진도 3곳, 완도 2곳 등 섬 지역 신입생 기근 현상이 뚜렷했다.

초등학교 4곳과 분교 10곳, 중학교 1곳과 분교 1곳은 신입생이 1명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에 시골 학교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형편이다.

거문초 덕촌·서도, 영광중앙초 월송, 보길동초 예작 등 분교 4곳은 올해 문을 닫는다.

전남 초·중·고교생은 2000년 34만1000여명이었지만 올해 19만3000여명으로 떨어졌다.

유치원을 포함한 학생 수는 21만3942



전남도교육청

명으로 지난해(22만409명)보다도 6467명이 줄었다.

학년을 통합해 진행하는 복식 수업이 놓여온 학교에서는 혼한 풍경이 됐다.

도교육청은 2개 학년을 합쳐 학생이 5명 이하일 경우 복식 수업을 하도록 했다.

범위를 확대해 보면 전남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정의된 작은 학교는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887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중 374곳(42.2%)에 달한다.

초등학교 489개 중 240곳(49.1%), 중학교 256개 중 125곳(48.8%), 고등학교는 142개 중 9곳(6.3%)이다.

초·중학교 2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60명에 못 미치는 셈이다.

학생이 부족해 교육 과정이 부실해지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으니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나 이농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개별화, 맞춤형 수업 등 놓여온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전남도 등 지자체, 관계 기관 등도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88억 투입… 국공립어린이집 120곳 확충

광주광역시
2022년153곳·이용률 40% 목표

광주광역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20곳 확충한다.

광주시는 이용습 시장의 보육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현재 33곳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남, 위험시설 6292곳 ‘안전사고 대진단’ 실시

전라남도도는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물 2만여개소 가운데 숙박시설 256개소, 낚시어선 247개소, 식품제조·판매업체 191개소, 전통시장 77개소 등 최근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개 분야 47개 시설물 6292개소다.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그동안 시설물 관리자가 시행하는 자체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의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간전문가·관리주체·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 분야별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면 안전진단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해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광주시는 당초 2022년까지 10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곳이 확충되는데 그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33곳, 이용률 5.2% 등 전국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자치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2년까지 매년 3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

기로 하고, 88억원을 시 자체 인센티브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확충 예산의 보조율을 당초 시·구비 각 25%에서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필요한 지자체 구입비도 기존 10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과 별개로 시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용돈 벌고 건강챙기고… 경로당 대폭 확대

전남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전라남도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인 마을 경로당을 일자리 나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19개소에서 실시했다. 올해는 3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전라남도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개소당 300만~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대표적인 사업은 영암 비래경로당의 국화 재배 및 메주 만들기, 고흥 장남 경로당의 유자청 만들기, 곡성 반송경로당의 토란 생산 등이다.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나눔 문화도 확산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한주 전라남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경로당이 작업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어르신들이 수익도 창출하고, 건강도 챙기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도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여를 바라는 경로당은 각 시군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업무 담당부서나 노인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도는 또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국비와 지방비 1천159억 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봉채영 기자